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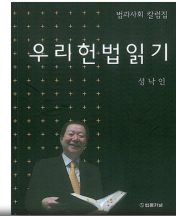
이달의 신간안내



우리헌법 읽기

성낙인 저

새로 출간된 「우리헌법읽기」는 저자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언론에 발표한 칼럼 중에서 대한민국 헌법과 직결되는 칼럼을 모아서 낸 책이다. 저자 성낙인 교수는 그동안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수호하기 위한 소론을 펼쳐왔으며 이 책에는 그런 저자의 오랜 정열과 마음이 녹아들어 있는 것이다. 본 책을 통해 우리나라 헌법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역사적 측면에서 기존의 시대상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속에서 바람직한 대한민국의 미래상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법률저널 간/412면/반양장/18,000원)

행정법연습(제6판)

김향기 저

제6판은 최근까지의 제·개정된 법령과 판례 및 변경판례를 반영하여 문제 내용을 재구성하였고, 일부 문제의 교체·추가로 95개의 방대한 사례문제를 통해 행정법의 거의 모든 쟁점을 빠짐없이 다루었다. 출제경향에 따른 설문형식과 최적의 답안구성방법으로 하였고, 채점기준을 제시하여 배점에 따른 답안작성의 범위·정도를 가늠하도록 하였으며, 자세한 설명내용 중 요점 부분만을 밑줄 처리하여 답안작성시 참고하도록 하였고, 일부 제목을 2색도로 하여 가독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책의 판형을 4·6배판으로 하여 크게 하였다.



(대명출판사 간/ 4·6배판/ 954면/ 49,000원)

민법사례연습

송덕수 저

제3판新民법사례연습은 민법 개정법률이 시행되는 때에 맞추어 출판되었다. 제3판에는 새로운 사례를 25개(민총 4개, 물권법 3개, 채권총론 8개, 채권각론 4개, 친족상속 6개)추가하여 각 분야의 균형을 고려하였고, 그 동안 변화된 법령과 새로운 판례 및 기존 판례의 변경을 반영하였고, 또한 독자들의 불편을 고려하여 한자를 모두 한글로 변환한 것이 특징이다.



(박영사 간 / 874면 / 양장 / 크라운 판 / 39,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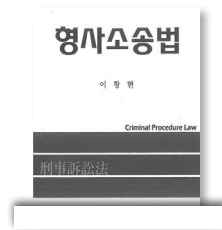


형사소송법

이창현 저

이 책은 형사소송법의 최신 판결을 모두 정리하여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학설, 판례, 검토의 순서로 체계화하였으며, 중요 판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와 법리, 결론을 효과적으로 정리하여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각종 통계와 언론보도의 내용까지 실어서 교과서의 내용이 실제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얼마나 활용되며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론 논의에 불과하고 실제 결론에서 차이가 없는 불필요한 논의는 가급적 줄이는 대신 간략하게나마 분명히 기억할 수 있도록 압축하여 서술하였다. 마지막으로 실무에서 활동하는 법조인들에게도 최근의 이론과 판례를 쉽게 파악하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고 자신의 주장을 장황하게 펴기보다는 간결하게 결론을 맺어 쟁점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하였다.

(입추출판사 / 934면/양장 / 가격 4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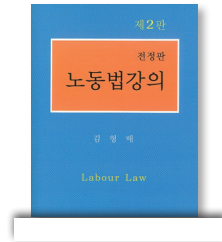


노동법강의(전정판)

김형배 저

『노동법강의』는 노동법의 체계와 내용을 보다 쉽게 학습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하면서도 압축적으로 서술한 책이다. 새로 나온 중요 판례와 문헌의 내용을 반영하고, 관련판례의 내용을 바꾸거나 추가하였다. 최근에 개정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의 법령을 반영하였다. 아울러, 임금체불에 관한 문제를 별도의 절로 신설하였다.

(신조사 간/B5판/양장/663면/44,000원)



상법총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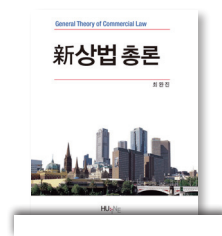
최완진 저

2010년 11월 15일부터 새로 시행되고 있는 「상법총칙·상행위편」의 전 부분에 걸쳐 개정된 내용과 새롭게 도입된 부분을 빠짐없이 수록하였고, 「상법총칙·상행위편」의 각 조문의 뜻을 충실히

파악하여 쉽고도 간명한 해설을 시도하되, 체계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였다. 또한 학설의 대립이 있거나 판례의 인용이 필요한 부분은 빠짐없이 서술하도록 노력하였고,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본문 중에 별도의 지면을 할애하여 정리하였다.

“상법총칙·상행위편의 주요 개정 내용 및 쟁점”과 “상법총칙·상행위법 전문”을 부록으로 추가하여 독자들이 개정 내용의 핵심 내용과 법조문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외대 출판부 / 338면 / 가격 28,000원)





판례형법총론

김태명 저

저자의 다년간 로스쿨 강의와 출제경험을 바탕으로 실정법과 판례의 법리(法理)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저술한 본격적인 로스쿨 형법교재로, 불필요한 이론적 설명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실사례 해결에 법리만을 정리하고 최근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행정고시 등 각종 국가시험 출제경향을 반영한 사례와 예시답안을 부가하여 각종 시험대비는 물론 실무능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판례형법각론은 2013년 12월에 발매될 예정이다.
(피앤씨미디어 간/4×6배판 / 644면/3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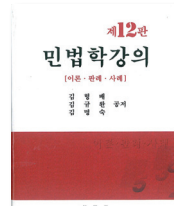


민법학강의(제12판)

김형배, 김규완, 김명숙 공저

2013년 7월 1일부터 기존의 행위무능력제도를 대체하는 성년후견제도, 미성년자의 보호를 위하여 친권자 지정에 관한 규정 등이 시행된다. 이러한 변화를 고려하여 추가하고, 판례도 개정된 규정을 고려하여 필요가 없다고 여겨지는 부분은 삭제하였다. 판례는 판례공보 2013년 1월 15일 제410호 까지 반영하였다. 특별법으로서 민법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환경정책기본법이 전면 개정되어 2012.7.22부터 시행되었으므로 특수한 불법행위의 문제로서 환경오염책임에 관한 항목에서 이를 반영하였다.

[신조사 간/크라운판/양장/2127면/7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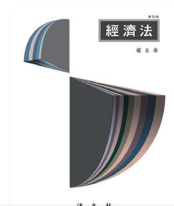


경제법(제10판)

권오승 저

제9판을 출간한 지 만 2년 만에 다시 제10판 전정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제10판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법이 크게 발전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매우 기뻐다. 제10판에서는 그동안 개정된 법률의 내용과 대법원 판례의 발전 및 학계와 실무계의 성과를 충실히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읽어 가면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나 표현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적절하고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다듬었다.

[법문사 간/4*6배판/양장/642면/35,000원]





사례행정법연구

김성수, 이영희 공저

행정고시와 사법시험에서 출제된 사례문제들을 행정고시 일반행정직 수석합격자 이영희씨가 철저히 분석하여 작성한 수준 높은 답안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성수 교수가 강평을 더하여 답안을 완결하였다. 답안 작성시 출제된 문제의 논점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답안을 작성하였다. 특히 답안작성시 판례를 자세히 활용하였고,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답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소결이나 결론에서 적시하였다. 그 다음 강평에서 부족한 부분은 추가하였다.

(법우사 간/4·6배판/40,000원)



한국재정

박기영 저

이 책은 국회에 근무하고 있는 박기영 감사관이 국가 예산·재정에 관한 오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이론과 실례를 한국재정측면에서 접근하여 가능한 한 범위에서 재정의 내용을 망라한 책이다. 재정의 내용파악은 재정학·행정학·헌법·행정법 등 여러 학문에 분산되어 있어 단시간에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반면에, 재정의 문제해결 여러 학문적 배경을 가지고 다차원적인 접근을 필요로 한다. 이 책은 총 5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우사 간/ 1164면/ 4·6배판 / 50,000원)



2014년 변호사시험 대비 객관식 형법·형사소송법

정웅석·노수환 공저

이 책은 변호사시험 선택형(객관식)을 준비하는 로스쿨 원생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교재다. 특징은 첫째, 형법총론과 형법각론문제, 형소법문제 및 통합문제로 구성하여 변호사시험의 출제기준에 맞추었다. 둘째, 법률은 2013년 6.19. 개정형법까지 반영하였다. 셋째, 대법원판례는 2013. 4. 5일까지 문제화하였다. 넷째,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사례문제를 객관식 통합문제로 만들어 형사법 전반에 관한 이해력과 응용력을 돕고자 노력하였다. 다섯째, 수험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해설을 자세하게 서술하였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도표를 활용하여 입체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대명출판사 간/반양장/ 956면/37,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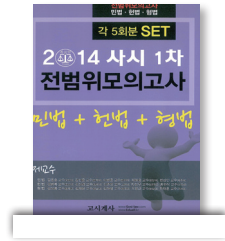




2014년 대비 사법시험 전범위모의고사

출제위원급 교수 과목별 5인 공편저

금년에 치러진 사법시험 제1차 시험에서도 검증된 전통의 고시계 전범위모의고사시리즈가 출간되었다. 이번 전범위모의고사시리즈에도 전국 소재 법과대학교 교수님들께서 참여하여 수준높은 문제들로 문제 Pool을 구성해 주셨다.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형법의 경우 하태훈교수님, 오영근교수님, 민법의 경우 제철용 교수님, 김민중, 헌법의 경우 이준일교수님, 김상겸 교수님 등 각 과목별 5인의 출제위원급 교수님들이 출제경향에 맞추어 출제를 해 주셨고, 문제의 질을 제고하였다. ② 제55회 제1차 시험에 출제된 비율과 난이도에 따라 2점, 3점, 4점 배점의 문제를 출제하여 실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수험생들이 보기 좋도록 편집하였으며, 학습의 편의를 위해 문제와 정답을 분리하였다. ④ 해설을 상세하게 하여 문제풀이에서 더 나아가 실력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고시계 간/타블로이드판/반양장/30,000원/과목당 각 5회분]

PSAT입문 (제5판)-입문에서 실전까지

PSAT 연구회 저

이 책은 5급공채(행정고시) 및 입법고등고시의 제1차시험 대비서인 공직적성시험의 준비서로 PSAT는 어떤 시험인지, PSAT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지, PSAT에서는 어떤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되며 그 풀이전략은 어떤지에 대해 출제영역 출제경향 좋은 성적을 얻는 방법 등등을 수험생들의 느낌과 함께 상세히 설명하고 있어 입문에서 실전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법우사 간/ 484면/ 4 · 6배판 / 35,000원)

일본형법 대표판례(총론/각론)

서거석 · 송문호 · 강경래 역

대한민국 성문법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법과 일본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하는 데에 수월한 이해를 가질 것이다. 왜 일본의 법을 연구해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법의 역사와 일본법과의 비교 연구는 과거의 발자취를 살피는 것이 이상으로 현재의 연원과 앞으로의 향로를 연구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형법은 근대화 시점에서 일제강점기인 1912년 조선형사령에 의해 일본형법이 그대로 적용되었고, 해방 후까지도 주로 일본형법학과 판례의 영향을 받아왔다. 최근에는 안으로는 로스쿨이 도입되고 밖으로는 국제정세가 빠르게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일본형법의 연구는 우리나라의 형법연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도서출판 fides 간/4 · 6배판/양장/20,000원]